



기름 제거에 구슬땀 흘리는 스님들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복구 현장에 불자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이 12월 14일 충남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기름제거 작업에 나섰다.

‘태안 바다 살리기’ 교계 팔걸었다

‘검은 바다’로 변모한 서해안에 전국 각지의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사고 발생 나흘만인 12월 11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기름유출 사고지역 오염방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설치, 체계적인 복구활동 지원에 나섰다. 전국의 사찰 및 단체에서 물려드는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사전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종단 예비비 3000만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스님은 작업현장 인근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4일부터 자원봉사자를 위해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 파견이 이뤄진 12월 13일, 피해복구 현장 찾았다. 이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봉사단원과 개인 봉사활동 신청자, 조계사 신도들이 주축이 된 긴급재난구호봉사대 100여명이 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 설치 복구활동 본격 지원 신도·스님 등 참여 줄이어...범종단 차원 지속적 봉사 필요

해현장에 도착했다. 신두리 지역 오염 상황은 이미 많이 정리돼 있었지만 갯벌에 남은 기름 찌꺼기와 모래밭에 침투한 기름 다했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초속 14~16미터에 달하는 강풍, 선밭대로 현장을 지휘하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기름 냄새가 강하니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며 단단히 채비를 갖추고 봉사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름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직포와 현수막, 현 옷가지 등이 총 동원됐다. 갖가지 천을 이용해 기름을 흡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모래에 깊이 흡수된 오염물질은 삽이나 쓰레받기를 이용해 퍼내는 수밖에 없다.

봉사활동에 나선 박명환씨(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는 “요즘 물이 조금 좋지 않지만 텔레비전에서 연일 나오는 태안지역 피해 상황을 보니 봉사활동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대학입학 준비에 한창 비록 고3 학생들과 휴가를 낸 직장인, 기말고사가 끝나기 무섭게 달려온 대학생 등도 힘을 보탤었다.

이미 5일간 현장을 지휘해 온 현대건설 배도환 현장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불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직원 100여명이 14~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연수일정을 연기하고 복구활동을 펼쳤다. 지관 스님은 태안군청을 방문해 기름 흡착포 대용으로 사용할 옷가지 등 지원물품 15톤(3

억 20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겨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불교환경연대,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 환경지킴이, 화계사 자원봉사단 등 서울지역의 불자 400여 명을 비롯해 마곡사 분말사 신도 300여 명, 동화사 학인스님 100여 명 등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대대적인 현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동안거 결제 중인 수덕사 정혜사, 견성

암, 보덕사 등에 방부를 들인 선방스님 100여 명도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탤었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도 14일부터 복구지원에 시작했다.

그러나 좀 더 신속한 활동전개와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절실하다. 복구현장의 한 관계자는 “원유 유출 2~3일 안에 봉사단이 파견됐으면 기름띠 제거에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한 발 늦은 파견을 아쉬워했다.

현재 서해안은 안면도까지 기름이 퍼내려가 2차 오염이 확산되고 있고, 전체 유출된 원유의 10% 정도 밖에 수거하지 못한 장기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02)723-5101 태안=김경진·여수영 기자

현대불교 기사평가하고 푸짐한상품받으세요

현대불교는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운영위원회를 전제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독자위원회’ 코너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매월 추천하여 푸짐한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 - 붓다뉴스(buddhanews.com) 좌측 독자위원회 코너 -> 기사평가항목실문 ->주소 남기기

종단청정위 구성 ‘없던 일로’

교단자정센터 “내년 부정부패 신고센터 만들 것”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계 8개 재가 단체들이 조계종에 요청한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는 12월 12일 종단청정위 구성 무산을 선언하고, 내년 1월 초부터 가칭 ‘교단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비위 제보가 접수되면 사법기관 등에 의뢰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교계단체들이 지난 3월 27일 조계종총무원에 종단청정위 구성을 촉구한 이후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논의해 왔으나 총무원측은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향후 계획을 12월 12일 현재까지

답변해 주지 않아 사실상 종단청정위 구성이 무산됐음을 알린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자정센터는 또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법률자문단 확대, 자정센터 신입 원장(최경춘)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중앙종회 불징계특권 폐지, 계파해체를 위해 역량을 모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단체 대표자들과 구성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실무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단에 구성 무산을 통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필 기자

社告

원순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여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원순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권, 2만5000원)
-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
- ◆가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 010-7504-4521 (장영희 변호사)
 017-535-0685 (김기영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고령적 장수 필요식품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 ◆산사참울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연호회)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불기 2551(2007)년 12월 26일 (음 11. 17) 수요일

- 제1부: 사리탑 제막식 (오전 9시 30분)
- 제2부: 추 모 법 회 (오전 10시)
- 문 의: 055)934-3000 (해인사 종무소), 055)932-7308 (원당암)
- 장 소: 해인사 비림(부도전)
- 장 소: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법

